

가스전 첫 타격 이란 보복... '에너지 전쟁' 격화 충격파

미·이스라엘, 이란 최대 가스전 폭격...이란, 즉각 카타르 시설 반격 이스라엘, 이란 정보부장관 또 제거...이란, 서안지구 첫 미사일 공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20일째에 접어든 19일(현지시간) 양측이 가스 시설을 두고 '맞불' 공방을 펼치면서 에너지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 에너지 인프라 파괴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등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이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의 3·4·5·6 광구는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다. 사우스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 가스를 정제·가공하는 아살루에의 파르스특별경제에너지단지(PSEEZ)도 공격에 손상을 입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한 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수드 페제사키안 이란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 공격이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GRC)도 성명을 통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해 추가 공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IGR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실제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북부 해안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카타르 내무부는 발표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라스라판 가스 시설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된 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

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중동 지역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해상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협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중동 곳곳의 석유·가스 시설이 공격받으면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

이란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육상 파이프라인과 터키에 등 인근 국가에 가스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가해진 공습으로 인해 이라크의 이란산 가스 수입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이라크 전력부는 발표했다. 이라크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가스 수요의 약 3분의 1을 이웃 국가인 이란에 의존한다.

이란이 공격한 카타르 라스라판의 가스 시설도 중요한 글로벌 LNG 공급처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 에너지 시장과 아시아 수입국에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

한편 18일 이스라엘은 카스피해 일대의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래 카스피해에서의 타격은 처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해군 자산과 함정을 파괴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그간의 주요 공습은 이란의 남쪽에 해당하는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에 국한됐다.

이스라엘은 또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장관을 표적 공습에 암살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하티브 장관의 사망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미사일공격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민방위대원들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서안 지구 헤브론 인근 베이트 아와에서 포탄 파편이 떨어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보고한 직후인 3월18일 점령지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여성 4명이 포탄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고 구조대원들이 밝혔다. 팔레스타인 적십자사는 헤브론 인근 베이트 아와 지역에서 여성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에서 발생한 첫 번째 팔레스타인 사망자이다. /AFP=연합뉴스

영 뇌수막염 집단 발병...2명 사망·의심 20건

영국 남동부 켄트주에서 청년들 사이에 뇌수막염 20건이 집단 발생했으며 그중 2명이 사망했다고 BBC 방송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보건안전청(HSA)은 17일까지 의심사례 20건이 접수됐고 그중 9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 사례 중 6건은 B형 수막구균으로 확인됐다.

최근 뇌수막염은 켄트주 켄터베리에 있는 대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사

망자는 18세 13학년생과 21세 대학생이다. 보건안전청은 확진 및 의심 환자 모두 청년으로, 뇌수막염 감염 영아 1명도 발생했으나 집단 발병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뇌척수막에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B형 수막구균은 세균성이다. 뇌수막염은 꾸준한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되며

홍역이나 코로나19, 독감보다 전파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집단 발병은 이례적이라고 BBC는 전했다.

먼저 확인된 15명 중 11명이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이달 3-5일 이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을 포함해 켄트주에서 학생제 2천500회분이 예방조치로 투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확진자가 나온 켄트대 켄터베리 캠퍼스 거주 학생들을 시작으로 최대 5천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中, 2027년 대만 무력없이 통제하려할 것"

SCMP 보도 "통일 달성 구제 일정 없어"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 없으며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통제하려 한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 정보공동체(IC)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IC는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미연방 정부 정보기관과 산하 조직들의 집합체로, 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지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I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강제하고,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중국 지도부는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점령에 투입할 역량을 "꾸준하면서도 고르지 않게 키워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5년 주기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한 선출 절차를 거쳐 3기 집권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선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의 제2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대만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한

다. 이란 상황에서 IC의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거듭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 주석이 말해왔다고 강조해왔으나, 정작 시 주석은 그와 관련해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작년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아시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약 8만3천10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일본에서 개인 파산은 2011년 10만5천건으로 집계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물가 상승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자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얻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실장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이 개인 파산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했지만, 실질임금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었다.

후쿠모토 실장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대출 보급도 개인 파산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짚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